

KEP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예측조사의 성과와 과제

고태영
입소스 그룹장

목차

- 1 KEP 선거예측조사의 역사
- 2 사전투표 도입과 KEP 예측조사의 발전
- 3 제22대 총선 예측조사 과정 및 결과
- 4 총선 예측조사 총평 및 개선 과제

요약

KEP 선거예측조사는 주요 선거 때마다 투표 종료와 동시에 유권자와 후보자들에게 정보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250여 개의 개별 선거구별로 예측을 해야 하는 총선거에서는 번번이 성공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이번 제22대 총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를 과대 예측하는 오류를 범했다. 사후분석 결과, 전화조사를 통한 사전투표 득표율 예측에서 더불어민주당 과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글에서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예측조사에서 위력을 발휘한 사전투표 전화조사가 이번 총선거에서 빚나간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1. KEP 선거예측조사의 역사

언제부터인가 투표 종료와 동시에 지상파방송 3사의 선거예측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행사가 되고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시청자의 알 권리 충족과 지상파방송사의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매 선거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선거예측조사를 수행하고, 투표 종료와 동시에 유권자와 후보자들에게 정보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노력해 왔다.

전국 단위 지방선거나 총선거(이하 총선)에서 모든 선거구를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0년 지방선거 KEP(Korea Election Pool,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 예측조사가 처음이다. 그 전까지 지상파방송 3사는 선거예측조사를 따로 진행하며 누가 더 실제 개표 결과와 비슷한 예측을 했는지를 놓고 경쟁을 벌여 왔다. 지방선거나 총선은 여러 선거구의 당선자를 동시에 예측해야 하는데 하나의 방송사가 모든 지역의 출구조사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그러다 보니 경합 선거구만 출구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비경합 선거구는 전화여론조사로 예측하는 방식으로 선거예측조사를 진행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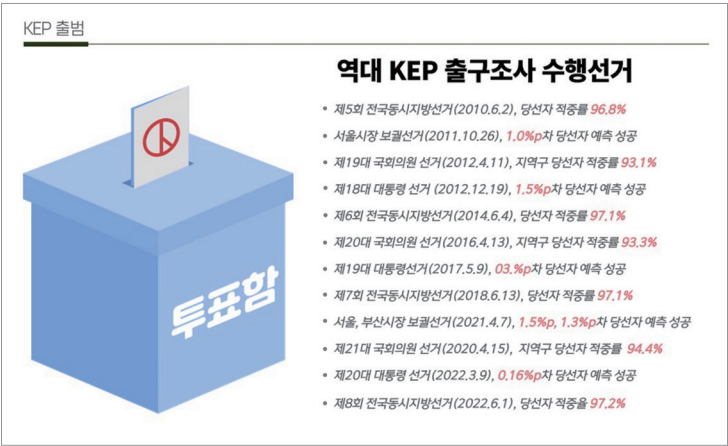
경합 선거구를 골라서 출구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출구조사가 지닌 방법론적 우수성 때문이다. 전화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 의향을 질문해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추려낼 수는 있지만,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응답(Social Desirability)’하려는 편향 때문에 실제 투표율보다 과다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화여론조사의 응답률은 통상적으로 10~20% 수준이다. 만일 전화여론조사로 선거 결과를 예측해야 한다면, 통화 자체를 거절한 80~90% 표본의 성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에 반해 출구조사는 각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사람만 조사하고, 조사 응답률이 70~8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선거 예측에 더 적합하다. 다만 출구조사가 지닌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원화된 선거예측조사는 크게 두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각 선거구의 경합도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선거 초반에 경합인 선거구가 투표일

이 가까워질수록 비경합 선거구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둘째, 가구 유선전화 가입 감소 등 통신환경이 급변하며 전화조사 표본의 대표성이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아무리 비경합 선거구라 하더라도 실제 개표 결과와 예측치 간 오차가 지나치게 커지면, 조사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지상파방송 3사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KEP를 설립하고 3사가 공동으로 선거예측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선거 경합도와 상관없이 모든 시·도를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3사가 경쟁을 하기보다는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보다 정확한 선거예측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그 결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KEP 출구조사는 초경합 지역이었던 서울시장과 제주도지사를 포함해 16개 시·도지사 당선자를 정확히 맞히는 데 성공했다. 당시 전화조사에 의존해 선거 결과를 예측했던 타 방송사들이 여러 번 당선자 예측에 실패했던 것과 대비되었고, KEP 예측조사는 2010년 한국방송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KEP 예측조사는 이후 세 차례의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2012년, 2017년, 2022년)에서 모두 당선자 예측에 성공했으며, 세 차례의 지방선거(2014년, 2018년, 2022년) 시·도지사 당선자 예측에서도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그림 1] 역대 KEP 출구조사 결과



2. 사전투표 도입과 KEP 예측조사의 발전

최근 선거예측조사에서 가장 큰 과제는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 나오지 않아 출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전투표자의 표심을 예측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도입된 때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현행법상으로 사전투표자에 대한 출구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를 놓고 KEP 내에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결과적으로는 ‘사전투표자의 성별, 연령대별 정치 성향이 선거일 당일 투표자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당일 출구조사로 나온 성별, 연령별 득표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계한 사전투표자의 성별, 연령대에 구성비를 적용해 보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러한 방식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활용되었으며 예측의 정확도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득표율 예측에 미치는 사전투표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갔고, 사전투표자와 본투표자 간 정치 성향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출구조사에 기반한 선거예측조사의 한계로 표출된 시점이 바로 2020년 총선이다. 2020년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6.7%로 전체 투표자 중 사전투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3%에 달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수치는 이번 2024년 총선에서 46.7%로 더 증가한다.

[표 1] 역대 선거 사전투표 현황

	2024년 제22대 총선거	2022년 지방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2020년 제21대 총선거	2016년 제20대 총선거
전체 투표율	67.0%	50.9%	77.1%	66.2%	58.0%
사전투표율	31.3%	20.6%	36.9%	26.7%	12.2%
투표자 중 사전투표자 비중	46.7%	40.5%	36.9%	40.3%	21.0%

2020년 총선 KEP 선거예측조사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승을 맞췄지만, 민주당의 의석수를 실제보다 적게 예측한 바 있다. 당시 KEP의 사전투표 득표율 예측치는 실제 사전투표 개표 결과로 나타난 민주당 득표율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다시 말해 2020년 총선의 사전투표자는 동일한 성별, 연령대의 당일 투표자에 비해 민주당 지지 성향이 훨씬 강했는데 출구조사의 성별, 연령별 데이터에 근거해 보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과소 예측이 발생한 것이다.

KEP는 급변한 선거 환경에 대응하고자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예측조사에서 사전투표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전투표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사전투표 득표율 예측에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KEP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에서 선거 당일 투표의 득표율은 출구조사 결과로, 그리고 사전투표 득표율은 전화조사 결과로 예측하기로 결정한다. 그동안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방식이라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현행 제도나 조사 환경 속에서 더 신뢰할 만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하필이면 새로운 시도로 예측에 도전한 대선에서 역사적인 접전 양상을 보여 예측치를 발표한 방송사나 조사회사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밤늦게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보아야만 했다. 다행스럽게도 KEP는 [표 2]와 같이 실제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선거예측조사 역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다.

[표 2] KEP 2022년 대통령선거 예측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실제	예측	오차(예측-실제)	실제	예측	오차(예측-실제)
전체 득표율	47.8%	47.8%	0.0%	48.6%	48.4%	-0.2%

사전투표 예측 전화조사의 타당성을 확인한 KEP는 곧바로 이어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대선과 같이 이원화된 조사방법으로 예측을 시도했다. 그 결과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 당선자 중 경기도지사 1곳만 빼고 모든 지역에서 당선자 예측에 성공했다. 1위 예측이 빗나간 경기도지사 선거는 예측 득표율 기준으로도 0.6%p 차의 초박빙으로 나타나 1위를 확정적으로 보도할 수 없었다. 실제 개표가 90%가량 진행되는 시점에도 당선자를 예상할 수 없는 초접전 선거였으며 최종 득표율 차이는 단 0.2%p 차이였다. 전체 투표 용지의 90%인 500만 표 이상을 개표해도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선거에서 약 1만여 명의 표본을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서 1, 2위가 엇갈렸다는 이유로 해당 조사나 분석 방법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었다.

3. 제22대 총선 예측조사 과정 및 결과

그 뒤 2년이 지나 2024년 총선이 다가왔다. 총선을 앞둔 지상파방송 3사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었다. 총선은 그동안 ‘출구조사의 무덤’이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총선 출구조사의 경우, 경합 선거구라 할지라도 10개 정도의 투표소에서 약 2,000명 정도를 조사한 뒤 당선자를 예측한다. 대선 출구조사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를 맞히기 위해 330개 투표소에서 7만 3천여 명을 조사하고, 지방선거 출구조사에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당선자 예측을 위해 각각 약 1만여 명을 조사하는 것에 비하면 그 규모가 현저히 작다.

총선에서 이 정도 규모로만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전국에 있는 254개 선거구를 모두 다 조사하려면 대선과 지방선거와는 비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비용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각 선거구에 배분되는 표본 수가 줄어드니 예측 오차가 증가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리고 통계적인 표본오차만 고려하더라도 254개 모든 선거구의 당선자를 100% 맞히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다. 전체적인 판세 예측에 성공한다고 해도 몇몇 선거구에 대한 예측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아쉬운 눈초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 3사는 다시 한 번 공적 책무 수행이라는 역할을 되새기며 총선 예측조사를 공동 수행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2년 전 두 차례 선거예측조사에서 검증된 사전투표 전화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4년 총선 출구조사는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되었다. 현장 조사는 입소스,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등 3개 조사사회가 나눠 수행했다. 전국 1,980개 투표소에 총 8,850명의 조사원이 투입되었으며 35만 9,759명이 투표자가 응답했다. 사전투표 분석을 위한 전화조사는 경합 선거구와 전국 비례대표 선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월 6일부터 9일까지 총 5만 284명의 유권자가 조사에 참여했다. 사전투표 전화조사 결과는 선거일 전에 분석을 완료했고, 여기에 선거 당일 투표소 출구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예측치를 산출했다. 지상파방송 3사는 투표 종료와 동시에 조사사회가 산출한 선거구별 예측치를 토대로 각 정당별 의석수를 예상해 보도했다.

[표 3] 제22대 총선 예측조사와 개표 결과 간 의석 수 비교 (단위 : 석)

정당별 의석수	예측조사 결과			실제 개표 결과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연합	177	13	190	161	14	175
국민의힘 + 국민의미래	75	18	93	90	18	108
새로운미래	1	—	1	1	—	1
개혁신당	—	2	2	1	2	3
조국혁신당	—	13	13	—	12	12
진보당	1	—	1	1	—	1

KEP 예측조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압승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이라 불린 100석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해 실제 선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각 당의 의석수 예측에서 오차가 발생하고 일부 관심 선거구의 당선자 예측이 빗나감으로써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표 3 참조). 총선 예측조사를 진행한 KEP와 조사회사 모두 총선 예측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선거를 기약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총선 예측조사의 정확도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당선자 예측의 적중률이다. 두 번째는 당선자 예측 오차(실제 개표 득표율과 예측조사 득표율의 차이 절댓값)이다. 두 기준에서 최근 네 차례의 KEP 총선 예측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역대 총선 KEP 예측조사 결과

항목	2024년 제22대 총선	2020년 제21대 총선	2016년 제20대 총선	2012년 제19대 총선
전체 선거구	254개	253개	253개	247개
당선자 예측 실패 선거구	18개	14개	17개	17개
당선자 예측 오차 평균	2.8%p	1.9%p	1.5%p	1.8%p

[표 4]에서 보듯이 2024년 총선에서는 총 18곳에서 당선자 예측에 실패했다. 2020년 총선 때보다는 예측 실패가 늘어났지만, 2012년과 2016년과 비교하면 이번 총선에서 유독 실패가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예측 실패 선거구 13곳은 1, 2위간 실제 득표율 격차가 5%p 이하인 초경합 지역이었다. 초경합 선거구는 후보 간 실제 득표율 격차가 표본 오차(각 선거구별 95% 신뢰수준에서 $\pm 2.9\%p \sim \pm 7.4\%p$) 범위 내에 있어 통계적으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지역들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표본추출과 자료수집 과정의 정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당선자 예측 오차가 직전 총선에 비해 1% 포인트 정도 늘어났다는 점은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게다가 예측 실패 선거구 대부분(16곳)에서 실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지역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잘못 예측한 오류가 발생했다. 만일 1위 예측 실패의 원인이 통계적인 표본오차에서 비롯됐다면 민주당 후보 당선 지역을 국민의힘 당선으로 잘못 예측하는 일도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을 것이다. 각 정당의 1위 예측 실패를 서로 비슷한 수만큼 주고받았다면, 각 선거구의 1위 후보를 바탕으로 계산한 정당 의석수 예측은 상대적으로 정확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각 선거구에서 민주당 득표율 과대 예측이라는 동일한 방향의 오차가 발생하며 지상파방송 3사의 의석수 예측까지 어긋난 것이다.

KEP는 총선이 끝난 후 당선자 예측에 실패했거나 오차가 크게 발생한 선거구를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화조사를 활용한 사전투표자 득표율 추정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이 실제보다 과대 예측된 오류를 발견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큰 힘을 발휘했던 전화조사 보정 방법이 총선에서 오히려 예측의 정확도를 떨어뜨린 요인이었다. 각 선거구 투표자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사전투표자 보정에서 민주당 과대 예측이 발생하다 보니 전체 예측치까지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었다.

사전투표 예측을 위한 전화조사 오차가 이번 총선에서 유독 컸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선거구별로 조사된 표본 수 자체가 적었던 것이 눈에 띈다. 전체 전화조사 표본 크기는 5만 명을 넘었지만, 각 선거구별로 조사된 사전투표자 수는 약 400명 수준이었다. 동시에 진행한 전국 비례대표 사전투표 전화조사의 표본 수가 약 3,000여 명이었고, 비례대표 득표율 예측에서 오차가 크지 않았음을 놓고 볼 때 지역구 단위의 소규모 표본이 불안정성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선거구별 전화조사 표본 수가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고려하고 있던 사항이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 전화조사에서도 총 5,000여 명 사전투표자를 조사했지만,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별로 조사된 표본 수는 200~300명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대선 득표율 예측에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사전투표 전화조사로 예측한 득표율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었던 다양한 여론조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였고, 같은 시도 내에서 사전투표 전화조사를 진행한 다른 선거구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출구조사로 예측한 본투표 득표율과 전화조사로 예측한 사전투표 득표율 간의 차이도 역대 선거에 기반한 데이터 상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범위였다. 개표 결과를 전혀 예단할 수 없는 선거 당일 상황에서는 전화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지표가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있으며, KEP에서 원래 계획한 대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예측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확인해 보니 사전투표 전화조사를 진행한 상당수의 선거구에서 민주당 득표율 과대 예측이라는 예상치 못한 편향이 발생했다. 여기서 우리는 전화조사를 실시했던 지역의 상당수가 경합지로, 그동안 전화여론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지역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선자 예측이 빗나간 서울시 동작구를(국민의힘 나경원 당선)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공표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횟수만 두 자릿 수를 훌쩍 넘길 정도로 잦은 조사가 진행됐다. 언론에 공표되지 않은 정당 내부용 조사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조사가 진행됐을 것이다. 총선에서 지역구 단위 전화조사는 대부분 이동통신 3사의 가상번호를 사용하고, 조사회사들은 보통 목표 표본 수(500명)의 30배수를 신청한다. 조사 때마다 1만 5천개의 가상번호를 추출하고 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수십 번을 반복하다 보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그동안 한 번 이상씩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아주 불운(?)한 유권자라면 하루에도 몇 통의 전화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 처음에는 전화를 잘 받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서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 않는 사람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는 언론사 전화여론조사는 물론이고 KEP 사전투표 전화조사에서도 30대 이하 젊은 층을 접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불과 2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더라도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경합 선거구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반복되는 전화조사에서 피로감을 느껴 여론조사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참을성 있게 전화조사에 응해주고 있었다. 목표 표본 수를 채워야 하는 조사회사에게는 고마운 분들이었지만, 이들이 정치고관여층이거나 현재 우세를 보이고 있는 후보의 지지층일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출구조사를 통한 본투표 예측에서도 민주당 득표율이 소폭 높게 예측된 사례도 있었다. 출구조사는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을 조사하기 때문에 표본추출 과정에서 체계적인 편향이 발생할 위험이 높지 않다. 아마도 지지후보 무응답 보정을 거치면서 민주당 득표율이 과대 예측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 출구조사에서 지지후보를 밝히지 않은 무응답자 비율은 선거구별로 20~30% 수준이었다. 출구조사에서 조사하는 문항은 성별, 연령대, 그리고 지지후보로 구성된다. 따라서 무응답 보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는 성별과 연령대가 전부이다.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고 야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수 성향 투표자들이 출구조사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샤이 보수’현상이 있었다면 성별과 연령에 기반한 보정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4. 총선 예측조사 총평 및 개선 과제

KEP 선거예측조사는 출구조사라는 대표성 있는 조사방법과 다년간 축적한 자료수집과 분석의 노하우를 결합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다만, 250여 개의 개별 선거구를 예측해야 하는 총선에서는 번번이 성공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증가하고 선거 당일 투표자에 비해 훨씬 더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최근의 선거 환경에서 출구조사에만 의존한 선거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 KEP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화조사를 고안했고, 이를 도입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놀랄 만큼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방법을 적용한 이번 총선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성과를 남겼다. KEP가 출범 당시 출구조사 전면 도입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전화여론조사의 대표성 문제가 사전투표 예측 과정에서 다시금 발목을 잡은 셈이다.

물론 총선과 같은 소지역 단위의 전화조사와 시·도 혹은 전국과 같은 광역 단위의 전화조사 환경은 사뭇 다르다. 조사 대상 지역이 넓어질수록 가상번호 반복 추출과 이로 인한 응답자들의 불편함이 발생할 확률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현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도 전화여론조사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 총선부터 도입된 휴대폰 가상번호 제도가 전화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 사이 여러 차례 선거가 치러졌고, 그에 따라 수많은 여론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선거 때마다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그만큼 전화조사에 더 많이 노출됐을 것이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휴대폰 가상번호 제공을 거부하거나 여론조사 전화 수신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세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었다. 이들은 모르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꺼리고, 유선전화로 발신된 전화는 스팸 전화로 인식하고, 음성 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휴대폰 가상번호가 우수한 표본추출틀임은 분명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특정 성향의 유권자들을 접촉할 기회가 조금씩 닫혀 가고 있다.

투표자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사전투표 득표율 추정이 어렵다면, KEP 선거예측조사의 정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깝게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현행 조사 방식의 보완이 먼저 떠오른다. 예를 들어 음성 통화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가상번호에 대한 문자 발송과 온라인 설문지를 결합한 조사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의 선의와 인내심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여론조사 회사에서도 단시간에 대규모 표본을 조사하는데 최적화된 기존 전화조사 절차와 시스템에서 바꿀 부분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자에 대한 출구조사 진행은 불가능하다. 만일 제도적으로 사전투표일의 출구조사가 허용된다면 적어도 선거예측조사의 영역에서는 전화조사의 대표성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사라진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이틀간 진행되고 본인의 주소지와 무관한 관외 사전투표까지 가능한 상황이기때문에, 선거 당일 투표소별로 이루어지는 현행 출구조사와는 크게 다른 환경을 마주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눈에 띈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 보정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었지만, 출구조사 과정에서 무응답을 조금이라도 줄였다면 사전투표 예측 편향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투표자들이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는 출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투표자가 본인의 의사로 응답을 거절하는 것까지 막을 도리는 없다. 출구조사 50m 거리 제한 규정으로 인해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무응답자가 증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투표소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거나,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 건물 내에 투표소가 위치할 경우,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투표자 중 일부를 놓칠 수밖에 없다. KEP는 출구조사 준비 과정에서 미리 투표소를 답사하고 문제가 발생할 만한 투표소를 대체하고 있지만, 선거일 당일에 투표소에 도착해 보니 현장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선거구에 따라서는 거리 제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투표소를 뽑는 과정에서 원래 추출한 투표소의 상당수를 대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거리 제한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로 투표소 관리자 혹은 시민과 마찰이 발생하면서 조사가 일시 중단되거나 실사 과정을 모니터링 해야 할 감독원들이 문제 해결에 매달리기도 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출구조사 거리 제한 규정이 폐지 혹은 완화된다면 출구조사를 통한 선거 결과 예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